

바흐무트와 아르툼 세르게예프에 대한 이야기

레닌의옆머리

바흐무트, 또는 아르테모프스크는 도네츠크 지역에 위치한 인구 7만명의 도시이다. 바흐무트라는 이름은 도시를 가로질러 세베르스키도네츠크 강으로 흐르는 바흐무트카 강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이 도시는 1924년부터 아르테모프스크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1921년 사망한 볼셰비키 혁명가 아르툼 세르게예프의 이름을 딴 것이었다. 소련 해체와 우크라이나의 독립 이후에도 아르테모프스크라는 이름이 유지되었으나, 포로셴코 정권이 시행한 탈공산화 정책에 따라 2016년 바흐무트라는 이름으로 돌아왔다. 2023년 바흐무트 전투에서 러시아가 승리하자 DPR 수장 데니스 푸실린이 바흐무트는 다시 아르테모프스크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히며 7년만에 또다시 이름이 바뀌게 되었다.



그렇다면 아르테모프스크라는 이름의 주인인 아르툼 세르게예프는 어떤 인물일까? 우선 아르툼이라는 이름은 혁명가로서의 가명으로, 본명은 표도르 세르게예프다. 그는 러시아 출신이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자랐으며 우크라이나에서 정치 인생을 보냈다. 아르툼은 1883년 쿠르스크 지방의 글레보보리는 마을에서 농민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가족은 1888년 우크라이나의 드네프로페트로프스크 (당시 이름은 예카테리노슬라브)로 이주했다. 1901년 아르툼은 예카테리노슬라브 기술학교를 졸업한 뒤 모스크바 제국 기술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모스크바로 떠났고,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에 입당했다. 아르툼은 1902년 학생 시위를 주도했다가 체포되어 투옥되었다. 대학에서도 퇴학당한 아르툼은 출소 후 파리의 러시아 사회 과학 학교에 입학하여 정치 교육을 받았으며, 그곳에서 레닌을 만나 볼셰비키가 되었다.

아르툼은 1903년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아가 본격적인 볼셰비키로서의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돈바스에서 광산과 철도 노동 현장으로 들어가 세포 조직, 노동절 파업, 선전 활동 등을 했고, 수차례 체포되었다. 1905년 하리코프에서 노동자 무장봉기를 기도했으나 실패로 돌아가고 1906년 체포되어 하리코프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탈옥했다. 아르툼은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우크라이나를 떠나 우랄 산맥으로 향했다. 그는 페름에서 당을 조직하려 했으나 결국 다시 체포되었다. 종신형을 받은 그는 시베리아의 형무소로 이송되었다.

1910년 탈옥한 아르툼은 조선과 일본, 중국을 거쳐 호주로 망명했다. 호주에서도 그는 혁명가로서의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러시아 이주 노동자들을 규합해 브리즈번의 러시아 이민자 조직의 지도자가 되었다. 러시아어 신문을 발행하고 총파업을 일으키기도 했다. 호주에서 아르툼은 "빅 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호주의 노동자들과 급진파들에게 명성을 떨쳐 지금도 기억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영화 선들러 리스트의 원작자이기도 한 호주의 작가 토마스 케넬리는 아르툼의 일대기를 배경으로 한 소설 'People's train'을 집필했다. 1912년 아르툼은 고국 러시아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나는 단 한번도 내가 몸 담고 있는 이 운동의 배신자가 되리라 생각한 적이 없다. 나는 이 운동의 진보를 방해하는 자들을 절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세계 어디에 있던 상관없이 당의 일원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단지 서약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진정한 나이기 때문이다."

1917년 러시아에서 2월 혁명이 일어나자, 아르툼은 노동절 집회를 벌인 후 7월에 러시아로 돌아왔다. 아르툼은 하리코프의 볼셰비키 지역당을 이끌었다. 또한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도네츠크 지역 위원회 사무국장 직을 역임했다. 8월에 아르툼은 사회민주노동당 6차 전당대회에서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10월 혁명 당시 아르툼은 하리코프와 돈바스의 봉기를 조직하고 이끌었다. 이후 아르툼은 하리코프 소비에트 집행위원장, 우크라이나 군사혁명위원회 의장, 볼셰비키 소속 제헌의회 의원,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중앙집행위원장, 우크라이나 인민위원회 통상산업인민위원 등등 다양한 직책을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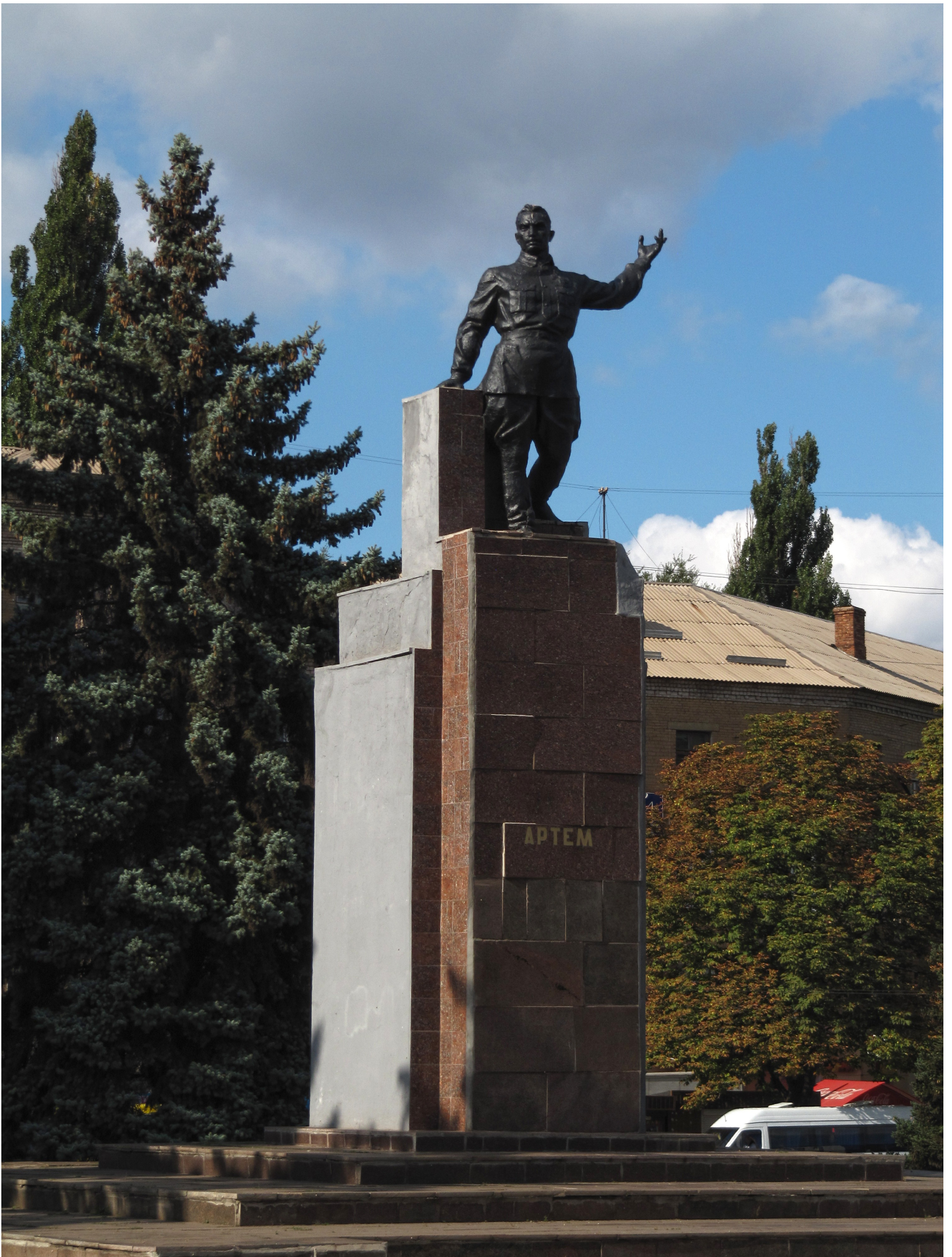


돈바스의 자치를 지지했던 아르툼은 1918년 도네츠크-크리보이로크 소비에트 공화국(DKSR)의 수립을 이끌었고 DKSR 인민위원회 의장 등을 맡았다. DKSR은 키예프의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이 수립한 중앙 라다, 칼레딘이 이끄는 카자크 백군 그리고 독일군과 맞서야 했다. 아르툼은 이에 대항하기 위해 제 1 도네츠크 군을 창설했다. 이 부대는 이후 보로실로프가 이끄는 붉은군대 5군에 흡수된다. 1918년 3월 DKSR은 오데사 소비에트 공화국과 함께 우크라이나 소비에트에 통합되며 한달만에 소멸되었다. 한편, 독일군이 하리코프와 돈바스로 진격해왔고 우크라이나 소비에트는 러시아로 대피해야 했다. 아르툼은 대피위원회를 창설하여 붉은 군대 제5군 사령관 보로실로프와 함께 철수 작전을 지휘했다. 그들은 돈바스의 난민들과 물자를 실은 3천대의 마차를 러시아로 이동시켜야 했다.

4월에 시작된 철수 작전은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독일군이 예상보다 빨리 루간스크를 점령하여 북쪽으로 향하는 철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백군의 표도르 크라스노프가 이끄는 돈 카자크 부대가 로스토프를 장악했기 때문에 남쪽으로 갈수도 없었다. 결국 돈 초원을 가로지르는 철도를 따라 차리친(볼고그라드)으로 이동하기로 했다. 보로실로프가 지휘하는 붉은 군대는 장갑 열차를 이용해 수송대를 호위하고 수시로 공격해오는 백군과 싸워나가며 천천히 차리친을 향해 나아갔다. 붉은 군대가 돈 강에 이르렀을때 이미 백군이 다리를 파괴한 후였다. 아르툼은 과거 기술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이용해 파괴된 다리를 수리했다. 마침내 7월 3일 수송대는 차리친에 도착했고 철수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아르툼은 8월에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아가 우크라이나 군사혁명위원회 의장이 되어 봉기를 준비했다. 1918년 11월 독일에서 혁명이 일어나자 우크라이나를 점령한 독일군은 빠르게 무너졌다. 12월엔 붉은 군대가 하리코프를 탈환했고 곧이어 동부 우크라이나 대부분을 되찾았다. 아르툼은 소비에트 우크라이나 인민위원회 선전선동인민위원, 도네츠크 지방 집행위원장이 되었다. 1919년 8월 데니킨의 백군의 공세에 밀려 붉은 군대가 수미에서 철수할때, 아르툼은 티푸스에 걸렸다. 1919년 12월 아르툼은 전러시아 중앙집행위원회 산하의 바시키르 지원 위원회 의장으로 임명되어 바시키르로 파견되었다. 아르툼은 바시키르의 소비에트 정부를 도와 녹군의 반란과 바시키르의 분리주의 운동을 제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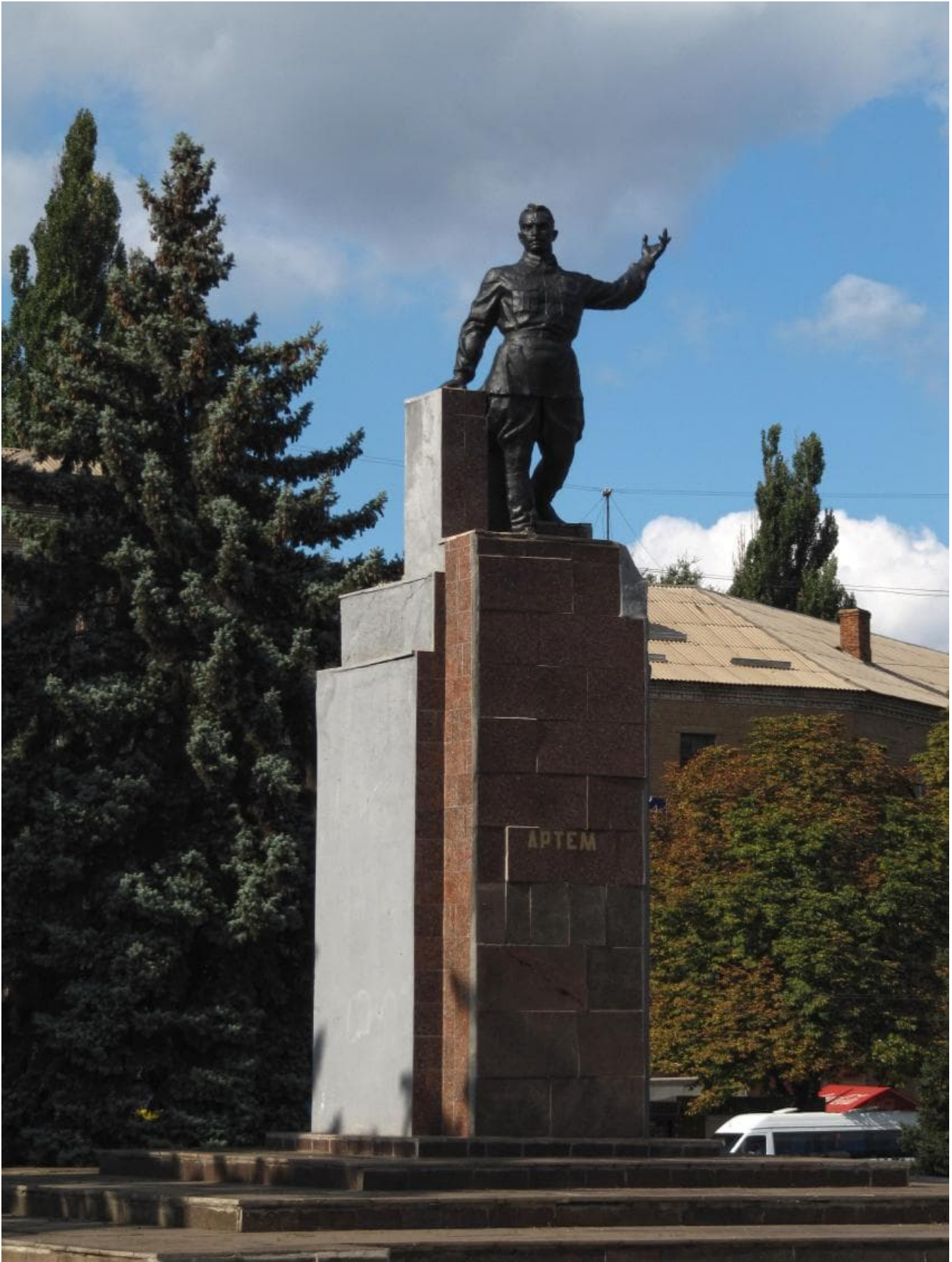




(문제의 에어로웨건과 프로핀테른 대표단의 기념사진)

1920년 4월 아르툼은 도네츠크 지역 집행위원장으로 재임명되어 돈바스로 돌아갔다. 이후 1921년 7월 24일 사망했다. 이날은 모스크바에서 프로핀테른 1차 대회가 열린 날이었다. 아르툼과 각국에서 모인 프로핀테른 대표단은 발레리안 아바코브스키라는 라트

비아 출신의 발명가가 개발한 에어로웨건을 타고 툴라를 방문했다. 에어로웨건은 항공기 엔진과 프로펠러를 장착한 열차로 최대 시속 140km로 달릴 수 있는 발명품이었다. 프로핀테른 대표단은 툴라를 방문하여 광부들과 만나고 조병창을 시찰한 뒤 다시 모스크바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들을 태우고 모스크바로 돌아가던 에어로웨건은 모스크바 남쪽의 세르푸코프를 지나던 중 탈선하여 낭떠러지로 추락하였고 결국 아바코프스키와 아르툼을 포함한 7명이 사망하였다. 이들은 모두 크렘린 벽 묘지에 안장되었다. 이렇게 아르툼 세르게예프의 파란만장한 인생은 갑작스럽게 마감되었다.



(크리보이로크의 아르툼 동상. 현재는 철거되었다.)

다른 저명한 볼셰비키들이 그랬듯이 아르툼 또한 사후 그의 이름이 도시나 거리에 붙여졌다. 특히 실질적 고향인 동부 우크라이나의 여러 지명에 아르툼의 이름이 붙여졌고 동상들이 세워졌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탈공산화로 인해 대부분의 동상은 철거되었고 지명에 붙여진 이름도 박탈되었다. 그 외에 아르툼의 일대기를 그린 연극과 영화 등이 만들어졌다.

아르툼의 아들 아르툼 세르게예프(가명을 아들의 이름으로 했다)는 아르툼의 사망 이후 스탈린의 양자가 되었고 소련군에 입대, 대조국전쟁에 참전하였고 전후 소장의 자리까지 올랐다.